

우리를 택하신 이유

성경본문 <신명기 7장 6절 ~ 11절>

[6]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이니 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만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11]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이삭을 거쳐 야곱(이스라엘)의 때에 이르러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종으로 살았지만, 오히려 민족으로 번성하여 출애굽하였으며, 광야에서 다시 40여년의 시간을 보냈으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 대략 680여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 주셨던 마음과 감동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들에게 보여주셨던 영광이 자녀세대에게는 몇 다리를 건넌 채, 전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 긴 역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1.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6]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에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나 **이스라엘 민족은 미미한 수준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순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만큼 우리를 가슴 뛰게 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설명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에 우리는 이유를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분의 사랑하심에 감사하고, 우리도 그 분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사랑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야겠습니다.

2.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십니다.

[8]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하신 또 다른 이유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 대까지 약속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그와 같이 패역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기준이 현실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어야 함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될 것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과 은혜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있었던 열매들입니다. 한결 같은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2.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소서.